

EU-Korea FTA Impact Assessment Study
Global Analysis Report Phase One

<번역본>

“글로벌 관점에서 본 한-EU 관계”

발표자: *Thierry Apoteker*, TAC Financial 선임연구위원

"EU-Korea Relations in Global Context"

Thierry Apoteker, TAC Financial

“한-EU FTA 의 지속성 평가”

발표자: *Murray Smith*, Ticon Consulting 선임연구위원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EU-Korea FTA"

Murray Smith, Ticon Consulting 선임연구위원

서언

본 글로벌 분석 보고서 초안은 앞으로 체결될 EU와 대한민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 설립에 있어서 경제, 사회, 환경적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EU-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FTA)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SIA)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무역 및 투자 측면이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과 EU 및 대한민국에 공히 미칠 수 있는 동 영향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FTA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이 검토될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대화를 갖는 것도 SIA 목적의 일부이며 SIA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FTA가 지속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에 관해 *본 글로벌 분석보고서 초안에 이해당사자 단체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SIA의 웹사이트는 그러한 대화와 협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SIA의 보고서를 동 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고 그에 대한 논평은 아래 SIA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웹사이트 : www.eu-korea-sia.org

이메일 : mail@eu-korea-sia.org

머레이 스미스 / 팀 리더

2007년 11월

목 차

1. 서론.....	6
2. 경제적 상황	10
3. 사회적 상황	11
4. 환경적 상황.....	12
5. 기초 및 영향 평가 분석.....	12
6. 업종 선정.....	14
7. 수평적 협상 이슈.....	14
8. 자유화 시나리오.....	15

1, 서론

유럽연합(EU)은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보완하여 인도, 한국, 남미 공동시장(Mercosur), 아세안(ASEAN)¹ 등 다수의 상대와 FTA 협상을 도모하고 있다.

EU는 1999년 이후로 무역정책 수립절차의 일환으로 무역 SIA의 실시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무역 SIA는 최선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된 자유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든 중추적인 영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한다. 무역 SIA는 무역 자유화에 따른 전통적인 경제적 영향(가령 무역이나 생산 증가에 대한)뿐만 아니라 무역의 영향까지 평가한다(가령, 사회 및 환경 차원과 지배구조(governance) 및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등 일반적인 발전과 관련한 검토).

무역 SIA는 질적 및 양적 어프로치를 병행하고 지속가능성 지표를 이용하며 비례분석원칙을 기초로 한다. 분석은 무역 SIA 방법론에서 확인된 핵심 지표 9개에 초점을 맞춘다(지속가능한 발전의 차원별로 3개). 무역 SIA는 또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해당사자² 및 무역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tool)이기도 하다.

EU-한국 FTA의 기초(baseline) 및 잠재적 영향 분석은 중대한 환경적 또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업종(sector)별 및 수평적(horizontal)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할 때 초점이 될 보다 더 중요한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업종별 연구를 위해서는 EU-한국 FTA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설정이 필요하다.

무역 SIA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무역 및 투자 측면이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과 EU 및 대한민국에 공히 미칠 수 있는 동 영향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에서는 협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이 검토될 것이다. 무역 SIA는 또 저개발국(LDC), 빈곤국, 취약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본 연구는 EU 27개국과 한국에서의 측면조치(flanking measures)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내지는 완화하며, 긍정적인 영향은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제안(무역 및 무역외 관련 공히)을 할 예정이다.

SIA는 협상 중인 협정이 지속가능성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EU와 한국 대표단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의 논의에 참고되도록 할 예정이다.

¹ 가령 2006년 5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SEAN-EU Vision Group : Transregional Partnership for Shared and Sustainable Prosperity의 보고서를 참고.

² SIA 핸드북 (p. 24/25)의 표3에 요약된 유럽위원회 커뮤니케이션 (2002 704 최종)에서 잠재적 이해당사자로 확인된 주요 분류에 의거하며 SIA 핸드북 5.42장 - (협의대상 시민사회단체)을 감안함.

컨설턴트가 수행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WTO의 기존 및 향후 원칙 (도하개발어젠다에 의거한 WTO 협상이 성공리에 완료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과 근년에 한국이 협상하여 실시되고 있는 FTA 협정에 대한 분석을 감안, 概觀 초안에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를 기술한다 (제 1단계).
2.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개 차원에 다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정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평가와 수평적 조치를 이행한다 (제 2단계).
3. 분석적 조사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생산성 향상, 노하우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해 시장 개방의 중기 및 장기 잠재적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동적 모형화(dynamic modeling)가 포함될 것임.
4. 최종 概觀을 작성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 및 투자 부분 협상에 있어서 EU의 입장에 대한 제안과 병행조치를 제출한다 (제 3단계).
5. 한국에서의 워크숍 등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필히 실시한다.

무역 SIA는 다음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 제 1단계 -착수 보고(Inception Report). 가능시 되는 결과와 업종 선정 및 수평적 조치를 포함하는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 작성.
- 제 2단계 - 선정된 업종과 수평적 조치가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의 구체적인 평가
- 제 3단계 - 최종 개관 및 EU의 협상 입장과 FTA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병행 조치에 관한 권고.

SIA 방법론에서는 추가적인 자유화와 규칙 제정이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지표** 중 핵심 지표들을 이용한다. 목표(target) 및 과정(process) 지표가 공히 이용된다. 목표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최종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반면에 과정지표는 장기간에 걸쳐 정책결정과 지속가능한 발전간의 양립 가능성(compatibility)을 평가한다.

지속가능성 지표에서 변화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될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외되고 있다.

- 피영향 영역에서의 기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압박(stress)의 범위

- 기초 여건의 변화 방향
- 변화의 성격, 정도의 순서, 지리적 범위, 환원 가능성(reversibility)/기간
- 규제적, 제도적 보완조치 실시 능력

무역 SIA는 무역정책에 제안된 변화와 그 사회, 환경, 경제적 영향간의 중요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원인분석(causal chain analysis)을 기초로 한다. 분석에서는 최대한 질적 및 양적 어프로치를 병행하고 지속가능성 지표를 이용하며 비율분석원칙에 근거할 것이다. 양적 평가는 모형 틀과 결과의 입수가 가능할 때 실시될 것이다. 분석은 향후 협정의 기초가 될 무역 및 투자 측면과, 협정에 포함될 무역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에 기초할 것이다.

2. 경제적 상황

EU는 무역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한국은 EU의 주요 무역 상대이긴 하지만 EU 전체 무역의 3퍼센트 이하에 불과하다. 반면에 한국에 있어서 EU는 전체 수출의 약 1/7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상대다.

한국은 2004년 이후 EU 신규회원국(NMS)의 활발한 경제성장에 일부 기인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 EU에 가입한 NMS 10개국은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종합적으로 무역제도가 최혜국(MFN) 베이스로 더욱 개방됐다. 전체적으로 NMS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MFN 대우로 무역제도가 대폭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³

한국과 EU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기계와 운송장비다. 이 업종은 한국의 경우 전체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EU에 있어서보다 더 비중이 높고, 한국 쪽에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종 내의 양방향 교역량이 크기 때문에 보완적인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가능성 그리고 만일 EU-한국 FTA가 협상을 통해 실시된다면 산업내 특화가 증가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EU는 최근 수년간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다.

EU와 한국의 무역제도 비교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공히 검토한다. EU는 평균적으로 한국에 비해 농업 및 비농업 상품에 대한 관세가 낮다. 한국의 경우 농업과 비농업 상품 공히 적용 관세율(applied rate)이 바운드 관세율(bound rate) 보다는 낮지만 적용 관세율의 평균은 여전히 EU의 관세율보다 크게 높다.

³ 최근 WTO에 가입한 발트 3국은 EU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아주 개방적인 무역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폴란드를 비롯 NMS 중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EU의 공동통상정책에 비해 훨씬 많은 제한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유럽연합과 한국간 잠재적 자유무역협정의 질적 분석 (Qualitative Analysis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에서 자동차 업종에서의 기술적 규제, 의약품 업종의 가격 규제, 화장품 업종의 시험 규제, 한국의 SPS(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제도의 측면이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에 있어서 시험 및 증명서 문제는 雙務的으로 해결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유럽연합과 한국 공히 WTO의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양 주체가 각기 다른 FTA 협상에도 참가하고 있다.

EU는 터키, 유럽 지중해권(Euro Med), 칠레, 크로아티아, 멕시코 등과 상호 또는 지역간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코토누(Cotonou) 협정에 의거 ACP(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제국 연합) 국가들과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협상 중에 있다. 그 외 FTA 협상은 ASEAN,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각기 다른 진행단계에 들어와 있다.

한국은 FTA를 도모하는 마지막 주요 무역국 중 하나였다. 2004년에 칠레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중 9개 국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실시에 들어갔다.

3. 사회적 상황

유럽연합은 총면적이 420만 km²에 이르는 27개 회원국(EU-27)으로 구성되어 총인구 4억 9000만 명의 3/5 이상이 유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 4,800만 명에 국토는 약 10만 km²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2005년에 EU-25는 GDP 10조 8440억 유로에 1인당 명목소득은 23,500유로에 달했다. 1인당 소득에서 룩셈부르크가 1위이고 이어서 아이슬란드와 덴마크다.⁴

한국은 1인당 GDP가 EU-15 및 OECD 평균인 약 3만 달러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05년에 1인당 소득이 NMS를 상회해 NMS 평균과 EU-15 평균의 중간쯤에 머물고 있다.

수십 년 후에는 유럽의 인구가 저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인구 구성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

⁴ 구매력 기준으로 측정하면 네덜란드가 3위임.

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재정적 난제가 있을 것이다.⁵ 인구의 고령화는 중대한 경제적, 예산상, 사회적 난제를 초래할 것이다. 고령화는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지출을 증가시킬 중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⁶ 이로 인해 회원국들은 장기적으로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 역시 유엔의 전망에 의하면 거의 중단된 인구 증가와 도시화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移行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전망은 한반도로의 移住 유입이 소폭에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함은 당연하다.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는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비교적 긍정적이다. 전체 고용률의 증가세는 OECD 평균을 소폭 상회한다.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1인당 소득보다 광범위한 복지 측정수단으로 다수의 사회적 지표를 감안한다. 한국의 HDI는 0.912로 UN이 집계한 177개 국가 중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HDI는 EU-15 국가 중 14위보다 낮지만 포르투갈이나 EU NMS보다는 앞서고 있다.

한국은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은 아주 높다. 하지만 여성의 상대적 교육수준과 노동력에의 참가 수준은 낮다.

4. 환경적 상황

21세기 이전 수십 년간에 한국은 농업사회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 중 하나로 변화했다. 산업은 GDP의 42.5%를 차지한다 (OECD 평균 29%를 훨씬 상회). 정보, 통신, 기술 산업도 성장세에 있긴 하지만 제조업과 에너지집약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세계최대의造船國이고 철강 생산에서는 세계 5위임). 10만 km²도 안 되는 국토에 4,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⁷ (평방 킬로미터 당 484명).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인구의 48%, GDP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해가 포함되는 1990-97년 동안의 양호한 환경적 발전에 이어 검토대상 기간 (1997-2005년) 동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 물, 폐기물 관리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새로운 환경 법규를 채택했다. 하지만 탄소, 에너지, 일부 원료

⁵ 유럽위원회-DG ECFIN, 유럽연합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European Economy n° 4/2006

⁶ 경제정책위원회 및 유럽위원회-DG ECFIN (2006) "고령화가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 : EU25 회원국의 연금, 헬스케어, 장기적 복지, 교육, 실업이전 전망 (2004-2005), European Economy 2006년 특별보고서 No 1. 참조. 이후 "고령화 보고서"로 지칭함.

⁷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함.

의 活用度 지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⁸

한국은 주요 에너지의 97퍼센트를 수입한다. 에너지와 운송 부문의 계획은 환경적인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마련되어 왔다.

한국은 자국이 가진 환경적 가치와 영향력 그리고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표현하는 데 대단한 진척을 보여 왔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수반하는 의무와 역량 그리고 OECD 회원국으로서의 새로운 의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은 주요 국제환경회의를 다수 주최하고 (가령 2005년 UN-ESCAP 아태지역 환경개발 장관회의, 2004년 UNEP 특별집행이사회, 국제환경장관포럼) 다자간 및 지역 기구에 훨씬 더 대대적,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지역적으로 환경역량 구축과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5. 기초 및 영향 평가 분석

SIA 연구의 기초(출발점 baseline)는 EU 통상총국(DG Trade)의 의뢰를 받아 Copenhagen Economics와 J.F.Francois 교수가 준비한 ‘유럽연합과 한국간 잠재적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영향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그리고 유럽정책연구센터(CEPS)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준비한 ‘유럽연합과 한국간 잠재적 자유무역협정의 질적 분석 *Qualitative Analysis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이라는 두 개의 연구를 근거로 한다.⁹

먼저, *경제적 영향 연구 Economic Impact Study*를 검토하고 기초 분석과 업종 선정을 위한 이슈를 확인한다. 이어서 *질적 분석 연구 Qualitative Analysis Study*를 참고로 하여 보다 더 광범위한 방법론적 이슈와 핵심 업종에서의 결과 분석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어프로치를 찾아 발전시켜 나간다.

*경제적 영향 연구*는 기초(baseline) 분석에 좋은 근거가 된다. 결과의 유용성을 알기 위해 자유화 시나리오나 모형 구조를 꼭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다른 자유화 시나리오도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의 형태로 검토될 수 있으며, 분석에서 나온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다른 시나리오를 통해서도 EU와 한국이 얻는 이익이 공히 막대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자유화 시나리오에 의거 이익의 규모가 줄거나 커질 수는 있어도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의 증거는 없다.

⁸ OECD 2005년 한국의 환경 이행상황 검토 www.oecd.org

⁹ Copenhagen Economics and Prof. J. F. Francois,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March 2007 and 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 and the 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KIEP) *Qualitative Analysis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November 2007.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 이용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 어프로치는 분석에서 소득과 가격 효과를 전반적 평형 프레임워크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게다가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는 제조업종에서의 독점적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업종에 어느 정도의 불완전 경쟁이 있다.

반면에 CGE 분석의 일부 제약사항과 모형화에 따른 가정을 감안해야 한다. 불완전 경쟁의 모형화를 위해 이용된 어프로치에서는 상품의 차별화, 이노베이션, 상품의 재조정, 산업내 무역 증가 면에서의 역동적 효과를 포착하지 못 한다. CGE 세계무역분석프로젝트(GTAP) 모형 계열에서 이용된 靜的 모형 어프로치는 무역과 생산에서의 “산업내 전환(shifts)”을 강조하고 산업내 특화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 입안자와 이해당사자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조정이라는 난제를 초래할 수 있는 무역 흐름과 생산에서의 큰 폭의 전환을 우려하기 때문에 분석 목적으로는 유용하다. 따라서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 자동차 등과 같이 무역과 생산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들은 이에 따른 기업의 실제 경쟁전략이 보다 더 복잡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SIA에 종합적 동적 모형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더 적절한 결론은 가능시 되는 동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과 경제 전반적인 글로벌 모형보다는 업종별 연구에서 그러한 동적 효과를 감안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EU-한국 FTA의 효과는 세계적 차원보다는 미시경제적인 업종 차원에서 보다 더 중요성을 갖기 쉽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에 그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兩 경제에 있어서 상호무역 흐름은 자체 경제에 지배적이지 못 하며 상호간에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제거한 데 따르는 효과는 제3국이나 다자간의 효과로 일부 상쇄될 수 있다.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 이용된 모형이 파악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피드백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당장 확인된 *경제적 영향 연구* 분석에서의 중대한 제약사항은 농업이나 비농업 부문에서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질적 분석 연구*에서는 자동차 등 업종을 비롯해 의약품이나 농산품 등의 기타 업종에서 비관세 조치가 對韓 수입에 중대한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 등 다른 FTA 협상에서 비관세 조치가 경주된 관심이 비관세 조치가 자동차와 기타 업종에서 중대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업종별 연구에 보다 더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업종별 연구에서는 업종의 자세한 규모와 발생가능한 재조정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모형화 전략을 원용할 수 있겠지만 분석은 업종별로 예상되는 기업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는 만일 한국에서 다른 FTA가 실시될 경우의 영향을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일 유통망 구축, 브랜드 이미지 구축, 국내 마케팅 채널 개발에 필요한 투자와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다면 시장 점유율에서의 손실은 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EU-한국간 FTA의 잠재적 영향에서 서비스 업종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영향 연구*는 제 2단계 연구에서 선정된 4개 업종 중 자동차, 농산물, 금융 서비스 등 3개 업종의 선정을 뒷받침한다.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업종은 환경정책과의 관련성은 물론 중요한 서비스 업종들과도 관련된다.

6. 업종 선정

제 2단계 연구에서의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4개 업종이 제안되었다. 4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업종
- 농업-식품 업종
- 금융 서비스 업종
- 환경 상품 및 서비스

7. 수평적 협상 이슈

SIA에서 협상의 모든 이슈들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지표와 관련해 영향이 예상되는 수평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과 장벽을 제거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선정된 금융서비스 업종과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등 2개의 서비스 업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 연구*와 *질적 분석 연구* 공히 서비스 업종의 장벽 제거가 EU-한국 FTA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비스 업종의 장벽 제거가 한-EU FTA 협상의 초점이었음은 분명하다. 서비스 업종 이슈에 대한 고려는 투자 이슈 분석까지 필요로 할 것이다.

*질적 분석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실시와 집행을 한국에서의 핵심적인 난제로 강조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한미 FTA에서 거론되었으므로 동 협정에서의 조항과 어프로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원산지 규정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이 한국측 주요 관심사의 하나다. 한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상품이 북한에서 가공된 경우 원산지를 한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의 경우는 상품과 지역의 범위가 서로 다르긴 했지만 역외가공을 수용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EU가 다수 지역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했던 표준적인 어프로치에 변경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질적 분석 연구를 비롯한 기타 연구에서는 TBT 및 SPS 이슈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 등의 산업에 있어서 공해, 연료 효율, 탄소 부하량(carbon loadings) 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 기술 규제와 표준에 대한 공통된 어프로치가 EU와 한국간 무역마찰을 일부 해결하고 EU-한국 FTA의 혜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미 협상에서 TBT와 SPS 이슈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SIA는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의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통해 협상에 기여할 수 있다. SIA의 연구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에서의 옵션과 어프로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인 수평적 이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 원산지 규정
- 지적재산권
- TBT/SPS
- 서비스/투자

8. 자유화 시나리오

본 장에서는 EU-한국 FTA 시나리오로서 상품만의 FTA에 대한 시나리오와 일체의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다 더 종합적인 FTA에 대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논의한다.

상품만의 FTA에는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 자유화 그리고 대부분의 비관세 무역장벽의 폐지가 포함된다.¹⁰ 한국은 1995년에 WTO에 가입한 이후로 다자간 무역 자유화로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 한국은 관세나 비관세 조치에서 공히 보호주의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만의 FTA는 한국 경제에 더 이익이 되고 EU에 있어서는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익이 소폭에 그칠 것이다.

¹⁰ 이 시나리오는 *질적 분석*에서의 단순 FTA와 다르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람. 상품만의 XXIV FTA 조항에 따른 본 시나리오에는 관세는 물론 비관세 이슈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FTA에서 장기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무역 흐름과 상호무역 균형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한국인들은 EU가 FTA 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상호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업종까지 고려하면 상호무역 적자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대단히 크지는 않다.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균형이 달성되고 합리적으로 지속되는 한에는 상호균형 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농업은 한국의 과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에서 아주 민감한 이슈였고 미국과의 FTA 협상 체결이 지연된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 쌀은 EU에 있어서 주요 수출목표가 아니지만 식품에 있어서는 EU가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선이다. XXIV 조항에 의거한 상품만의 협정에 대한 시나리오에서는 합리적으로 포괄적인 농산물 수출의 범위 등 XXIV 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TBT와 SPS 이슈의 해결도 XXIV 조항에 의거한 상품만의 FTA 협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효율적인 지적재산권의 실시와 집행을 위한 협력은 GATT 1994의 XXIV 조항에 의거 상품만의 FTA에 일부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 일체의 장벽을 해소하고 背面의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비관세 조치에 있어서 광범위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 FTA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협정은 GATT 1994의 XXIV 조항 및 GATS V 조항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